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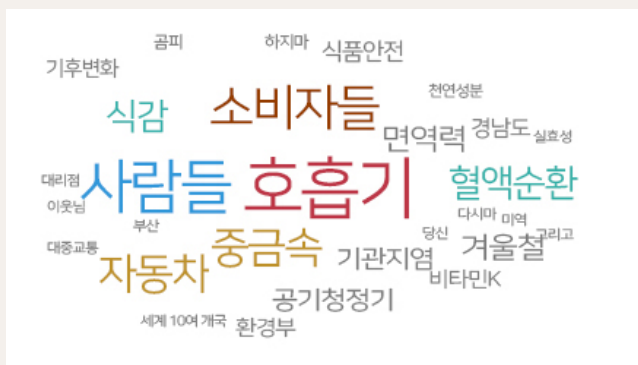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발생 시 구매 품목·장소 변화 및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 정보 등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에서 실내로 구매처가 변하고, 굴·도라지·해조류 등 건강을 고려한 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식을 줄이는 대신 집밥에 대한 수요가 높고, 건강과 관련된 농식품 정보 제공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진청 소비자패널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응답률은 60%(930가구), 표본오차 $\pm 3.13\%$, 신뢰수준 95%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농식품의 기능성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미세 먼지 피해를 경감시키는 농식품 정보제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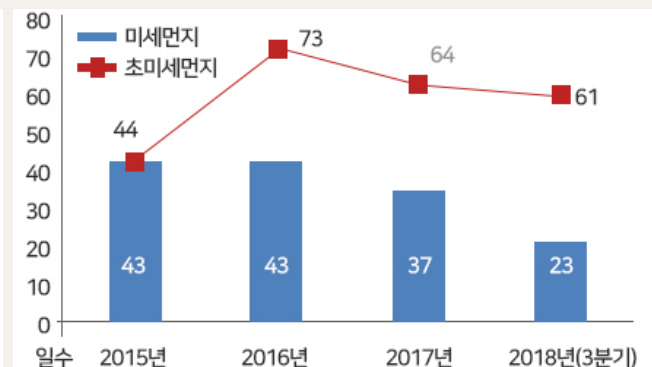


미세먼지 및 농식품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

- 호흡기·중금속·면역력 등 건강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농식품 관련 키워드】



【연도별 미세먼지 발생일 수】



구매 장소

- **(대형마트·온라인 강세)** 미세먼지 발생 시 구매장소를 바꾸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약 21.7%인데, 선호하는 장소는 대형마트(54.7%), 온라인(20.5%)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장소는 전통시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 대형마트(54.7%) > 온라인쇼핑(20.5%) > 슈퍼마켓(10.7%) 순
- 반면 가장 기피하는 구매처로는 전통시장이 79.5%로 가장 높음

< 미세먼지 발생 시 구매장소 변화(%) >

구 분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전통시장	백화점	기타
구매장소 변경 시 선호장소	54.7	10.7	20.5	7.4	1.7	5.0
미세먼지 증가 시 기피장소	6.8	2.0	3.2	79.5	2.6	5.9



구매 품목

- **(건강중시 품목증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때 구매를 늘리는 품목은 돼지고기·굴·도라지·해조류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 호흡기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굴(20.5%)·도라지(11.0%)·해조류(10.5%) 등은 구입을 늘린다고 응답하였으며, 돼지고기(22.8%)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하여 과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세먼지 증가로 구매를 늘린 농식품 >

	돼지고기	감귤	도라지	해조류	배	녹차	오리
비중(%)	22.8	20.5	11.0	10.5	9.1	5.6	5.4



미세먼지 증가 시 외식변화

- 미세먼지 증가 시 외식을 줄인다는 의견은 약 48.8%로, 변화없음 이라는 의견(50.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 외식을 줄일 경우 배달음식(18.8%), 즉석조리식품(6.17%) 보다 직접 조리해서 먹는다는 의견이 7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미세먼지 발생 시 외식형태 변화 >

미세먼지 증가 시 외식횟수 변화	비중(%)	외식 감소 시 대체방법	비중(%)
줄인다	48.8	집에서 만들어 먹음	74.9
변화 없음	50.2	배달음식	18.9
늘린다	1.0	즉석조리식품	6.2



미세먼지 관련 건강정보

- 소비자가 얻고 싶은 정보유형은 호흡기 질환예방에 도움 되는 농식품(24.5%), 건강위험 예방 농식품(24.1%),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 되는 농식품(2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밖에도 면역력 저하 방지 농식품(14.1%), 미세먼지 정화식물 (13.7%)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조사되었습니다.